

+ 찬미 예수님,



Christin the Garden of Gethsemane.
게세마니의 성당

사순 3 주일인 오늘의 복음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는 (루가 13,1-5) 말씀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에 대한 (루가 13,6-9)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회개에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즉시 재앙을 주시지도 않고,
주님께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회개할 것만 같아,
오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도
즉시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는지
한 해를 더 기다려주듯이 죄인의 회개를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흔히들 회개란 단순히 죄에서의 돌아서는 것만으로 생각하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삶의 변화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말씀(루가 16,19)에서 화사한 옷을 입고
행복하게 지낸 부자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잘못과 불법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 보다
내가 깨달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
죄 뿐만이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마저도
그것이 장애물이라면 매 순간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사 순시기에 요구하는
회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에 중간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 시간이 구원 곧 참 자유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께 다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축복받는 좋은 한 주일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토마스